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저희는 쓸모없는 종
입니다. 해야 할 일
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루카 17,5-10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
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
치시면서, 곧 이어서 겸
손한 순종에 대해 말씀하
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
시는 믿음이란, 내 소원
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착
하신 뜻이 꼭 이루어진다
고 믿는 것입니다.

도나텔로 작, 하바쿱 예언자
1430년 경,
피렌체대성당박물관

제1독서 하바 1,2-3; 2,2-4

제2독서 2티모 1,6-8,13-14

복음 루카 17,5-10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이지훈 안드레아 신부 | 군중사제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뿐인 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천이 없는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알아봐주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뿐인 신앙, 실천 없는 그러한 믿음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따끔한 한마디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겸

손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느님은 내 옆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력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진 도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없이 겸손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며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로**



신앙의 해 교리 퀴즈 ㉔



인간이 존엄한 까닭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시고 지성과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이 ‘이것’의 명령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46회 군인주일 담화문 (요약)

희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제46회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군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군종사제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사랑으로 장병들과 군종사제들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과 정전협정 폐지 주장, 개성공단 폐쇄라는 도발 공세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종교구는 ‘희망 안에서 예수그리스도께로’를 올해의 사목목표로 정하고 모든 군인들이 현재의 임무에 충실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군 사목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구원의 성사로서의 교회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주일은 군인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성직자, 수도자, 봉사자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쏟는 주일입니다. 예전부터 군대를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군 사목의 대상이 바로 교회의 미래이며 인류의

미래인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전통 가치에 대한 회의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주일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군 사목에 협력하는 주일이자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형제들을 위한 주일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군종교구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구로부터 파견된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한 교구입니다. 군종사제들은 군인들에게 신앙의 빛을 전하는 가운데 사제이자 군인의 신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사목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아울러 군 사목을 후원을 주시는 후원자들의 정성과 기도를 통해 군종교구는 군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사목을 위하여 보내 주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10월 6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인간은 그 이성으로 ‘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모든 사람은 () 안에 울려 퍼지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이행하는 이 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06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승엽과 추신수의 선택, 그리고 신념

황은모 요한 신부 | 반야월본당 보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서 순위 다툼도 더 치열해지고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의 활약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승엽 선수는 아시아 홈런왕으로 유명하고 추신수 선수 역시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뛰어난 타자로 활약을 하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야구계의 최고의 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두 선수 모두 젊은 학생 시절에는 투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에 데뷔를 할 때 주변의 권유를 받고 타자로 전향을 결심한 선수들이지요. 야구에서는 아무래도 투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투수의 길을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을 하기까지는 두 선수 모두 많은 고민과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자로서 워낙 뛰어난 활약을 하고 성공을 거두었기에 지금은 모두가 그 당시에 타자로 전향하기로 결심한 것을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타자의 길을 가지 않고 투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랬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타자로서 보여 주었던 만큼의 뛰어난 활약은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어떠한 선택을 하였더라도 훌륭한 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처럼 한 번씩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나 추신수 선수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된 비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신념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저 인생의 어떠한 기로에서 선택을 잘해서, 복권 당첨되듯이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해진다거나 성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신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 내가 만약 그때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 길로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역시나 똑같은 한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온전히 투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길이 주어지고, 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항상 행복하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로**

믿음의 오류

어느 전문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산을 올랐고, 산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집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올랐습니다. 자신이 늘 오르던 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산이었기에 산책 하듯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라 온 그는 풍경을 만끽하다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작은 산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손전등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내려오던 그는 그만 발을 헛디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나무뿌리를 붙잡은 그는 시간이 흐르자 점점 온 몸에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간힘을 다했지만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구조요청을 하였지만 주변에는 인기척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구해주시면 이제부터 하-

느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급기야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그는 더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렇지만 그는 다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라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구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 산악인이었던 그는 땅에서 1m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나무뿌리를 꼭 잡고 죽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느님을 끌어 들이려는 잘못을 범합니다. 참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필리몬**

금주의 성인



성 시메온(10월 8일)

신약성경에 예루살렘의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언자 시메온 성인께서는 올바르게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셨다. 성인께서는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되는 아기 예수님을 보시고 달려와 두 팔로 받아 안으시고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 시메온의 노래)로 알려진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는데(루카 2,22-35) 4세기경부터 교회의 성무일도에 삽입되었다.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평생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려 온 성

인께서는 참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9월 27일(금)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에서 1, 3대리구 신자 1,500여명과 함께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3년 교구 도보성지순례



2013년 교구 도보성지순례(순례코스 : 가실성당~신나무골)가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과 교구 사제단 및 신자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도서관과 카페를 겸한 열린 문화공간 『**앞산 밭 북카페**』 OPEN

책과 차의 향기로 물드는 가을의 정취! 앞산 밭 북카페에서 더욱 풍성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십시오.

- 이용대상 :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매주 월~금 오전 10:00~오후 5:00(토, 일은 청소년에게만 개방)
- 프로그램 : 문학, 음악, 미술, 종교 등 교양강좌/추억의 영화상영/고전 함께 읽기
- 위치안내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724-1번지 대경빌딩 3층
(지하철 1호선 현충역 2번 출구, 안지랑역 3번 출구 중간 지점 소재)
- 이용문의 : 053)622-1900 abpcafe@naver.com

NAVER

앞산 밭 북카페

검색

<http://cafe.naver.com/apbcafe>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4주일(9월 15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② 정답은 <공복재>입니다.

당첨자 : 박찬(미카엘, 복자), 박인숙(마틸다, 수성), 김철식(알베토, 매호),
김경미(루시아, 복현), 권기순(소화데레사, 상인)

인도족의적 차원에서라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7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집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토) 11:00 성모당
10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0월 7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을 성당	-	-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10.12(토) 17:00~13(일) 13:00
장소: 왜관 수도원 상원관
대상: 고등학생~31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0.13(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칠락묵주기도

일시: 10.12(토) 15:00
장소: 관덕정 순교성지 신관 3층
문의: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010)6372-9781

거룩한 독서 (LD) 피정

4박5일: 10.23(수)~27(일)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

MR 피정(성경묵상프로그램)

13차: 10.26(토)~27(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983-0521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

교육 | 모집

프란치스카눔 교육 모집

거룩한 미사 반주자 오르간 기초교실
일자: 10.13(일)
모집인원: 5명(1인 20만 원)
기본좋은 대화, 행복한 삶 워크샵
기간: 10.10~31(매주 목) 10만 원
지도: 황광우 신부, (070)4266-0047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12.31(화)~1.28(화)
대상: 초4~고3(50명 / 선착순 모집)
문의: 656-6655(ARS 4번)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11.15(금) 17:30~17(일)
4박5일: 11.11(월) 14:00~15(금)
8박9일: 10.14(월) 14:00~22(화)
에니어그램: 11.1(금) 15:30~3(일)
문의: 성심수녀회, (031)946-2337~8

순교자현양회(서울대교구) 일본성지순례

일자: 11.5(화) / 다른 날짜 전화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
회비: 57만 9천 원(4박 5일)
문의: (02)318-7202 / (02)778-510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제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설명회

초·중·고: 1.4~2.23(3·5·7주)
대·일반: 1.5~2.16(6주 또는 장기)
설명회: 10.19(토) 14:00, 남산성당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신문 코루즈 성지순례

기간: 11.15(금)~28(목), 13박 14일
이테리, 프랑스, 스페인, 모나코, 튀니지
내측 508만원, 오션뷰 538만원
발코니 568만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우리 아이 첫보약은 원방한의원에서
원 방 한 의 원
前 대구가톨릭대 교수
現 경북대 가정의학과 외래교수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 이정현(요셉)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풀스파랜드 3층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나가사키성지순례
항 공(스타플라이어) - 확정
11월 18일~21일(3박4일)
순례경비 85만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경지여행 조필래(유스티노)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복층구조(초, 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카페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종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일리 549-1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동기, 공부방법, 노트필기, 교과서적용, 학습플래너)
학습코칭반 / 글분석반 / 다중지능검사
752-0966 (윤종선 가필로)
수성구청역 2번 출구 KBS 앞

행사 | 모임

세계 십자가 전시회

최경환(F.하비에르) 신부님의 소장품
기간: 10.16(수)~23(수) 10:00~16:00
장소: 옥수성당 전시관
문의: 792-2233

대구평화방송 개국17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25(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변진섭, 안치환, 오정해, 팍스,
기쁨과 희망(사제밴드) / 전석 2만 원
예매: 티켓링크, 251-2610, 2621
<http://www.dgpbco.kr>

뮤지컬 <사랑해 톤즈> 공연

기간: 10.4(금)~6(일)
금 19:3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장소: 영남대천마아트센터(지하철2호선)
신자 특별30% 할인(올해 주보지참시)
후원: 대구평화방송, 문의: 254-7241

교육 | 모임

제8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0.26(토) 13:30~27(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교구 복음화 학교 기초과정 개설

기간: 10.17(목)~18(금) 14:00~17:30
10.24(목)~10.25(금) 14:00~17:3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대상: 구역장, 반장, 단체장, 1인 1만
신청마감: 10.10(목), 250-3056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0.30(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 5천 원
주제: 사춘기 청소년 심리 이해
강사: 조명실 마리아(계명대학교 조교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정평위 '함께꿈' 월례미사 및 특강

일시: 10.9(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함께 걷는 평화와 통일의 길
강사: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10.6(일) 15:00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회비: 1만 원 / 문의: 255-4847

제49기 선교대학 선교, 왜 못하는가?

일시: 10.19(토) 10:30~16:30
장소: 대구 계산문화관
강사: 이관석 신부
선착순: 60명(신청비, 점심 무료)
문의: 가두선교단, 781-6100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1차 10.12(토) 14:00, 대건고
2차 10.30(수) 19:00, 대건고
원서접수: 11.18(월)~20(수)
입학상담: 638-9332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14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15(화) 10:30(10분전 입실)
(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대구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대금,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토폴인팅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교구청 세탁실 직원 채용

자격: 35~60세 이하의 신자(여)
마감: 10.20(일)
문의: (010)9206-3224

결혼이주여성 봉제근로자 채용

분야: 봉제미싱사(봉제가능자)
대상: 결혼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주민 여성
근무: 주40시간 또는 주25시간
급여: 최저임금 이상
문의: 621-2025 / 10.10(목)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감현도(베드로), 이영해(율리안나)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에이 통증의학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광진 이조맛김
시해안 청정해역 명물 김
김 · 건어물 · 젓갈류 판매
성천(광진)마을 마안 및 바지회 성모회 · 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로모임
이 경 속(모니카) 010-4123-5353
광천분사: (041) 641-3838 대구지사: (053) 256-3836
농협 151-0054-3404-431 예금주 이경숙
한가리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백두정형외과
의학박사/원장 배 상 군 (베드로)
소아청소년과
하리통증 인공관절 의학박사/원장 배 상 영 (미카엘라)
관절정수 수술전문 (어깨 무릎 발목)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053)425-5919
(구) 백역두 정형외과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노증/성장장애 · 감기예방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현 통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